

Effect of Coping with Grief Using ‘Sang-Yeo(喪輿, bier)’ in Korean Traditional Funeral Service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Focusing on ‘Bin-sang-yeo-nori’ and ‘Sang-yeo-sori’

Meewha Baek¹, Changho Shin², Cheolhae Ye^{3*}

^{1,2}Korea University, ³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iscuss how the pain of loss can be the foundation of growth. As guidance for education on coping with loss, the significant roles of enhancing resilience of the bereaved of Korean traditional funeral ritual using ‘Sang-Yeo’(bier) have been discussed.

CONTENTS ‘Sang-Yeo’(bier) has a special role that provides time for gradual healing by allowing the bereaved family to express the immense sorrow they experience immediately after a major tragedy. Korean traditional funeral services using ‘Sang-Yeo’(bier), have two different processes have been the focus of attention. First, it is ‘bin-sang-yeo-nori’, which includes songs with dances and a lot of laughing with humor during the ceremonies. Also, ‘Sang-yeo-sori’, a sad requiem song that connects the dead and the living, makes it possible to relieve the sorrow caused by the loss of a beloved one.

RESULTS The pain of loss can enhance resilience when we can grieve and face it, and finally, this loss can be the foundation for growth. Growth, which is the healing power of the bereaved, is a practice to cherish each other’s life values and restore the dignity of human life.

KEY WORDS sang-yeo-sori, bin-sang-yeo-nori, mourning, loss coping education, dignity of human life

* Corresponding to Cheolhae Ye (Professor,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E-mail : chye1103@kh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상여(喪輿)를 이용한 한국 전통 상례(喪禮)의 치유 기능과 교육적 의미: ‘빈상여놀이’와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백미화¹, 신창호², 예철해³

¹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²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³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여(喪輿)를 이용한 한국 전통 상례(喪禮)의 슬픔 치유 기능을 고찰하여 상실의 고통이 성장의 기초가 되고 삶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지하게 되는 교육적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상여를 이용한 한국 전통 상례 속 ‘빈상여놀이’의 치유 기능과 ‘상여소리’의 울결(鬱結) 해소 역할의 의의에 대해 애도 이론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 장례의 ‘상여(喪輿)’는 현세에서 내세로 떠나는 길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운거(運渠)한 제구(祭具)이다. 이 상여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장례의 과정들은 죽음이라는 큰 변고를 당한 직후 유가족들이 겪게 되는 내적인 슬픔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서서히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제도적 장치 구실을 하였다. 한편, 상례 중 웃음과 해학이 포함된 ‘빈상여놀이’가 행해졌는데 슬픔 중 웃음은 상주와 문상객들이 상실의 고통에서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찰나의 휴식은 슬픔을 견딜만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양가감정의 진동을 경험하는 애도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또한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주는 구슬픈 진혼곡인 ‘상여소리’는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울결을 통곡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회한과 참담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탄이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충분한 슬픔의 표출은 희망, 재조정, 치유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됨을 배려한 처사이다.

결론 상실의 고통은 대면하고 직면하여 충분히 애도할 수 있을 때 회복력을 고양할 수 있으며, 마침내 이 상실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성숙한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생명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의 기초가 된다.

주제어 상여소리, 빈상여놀이, 애도, 상실치유, 인간생명의 존엄함

I.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질환에 감염된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火葬), 후(後) 장례(葬禮)’라는 전대미문의 장사법(葬事法)을 시행하였다.¹⁾ 가족 특히 부모를 사별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망자의 마지막을 엄숙하고 존엄하게 보내야 하는 인륜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처사였다. 팬데믹(pandemic)을 겪으면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성 회복과 상실에 따른 슬픔 치유를 위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오늘날 치러지는 현대식 상(喪)·장례(葬禮) 문화가 한 죽음에 대한 존엄과 주체성을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해치우는 상업적 장례 방식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빨리 처리하고 재빨리 잊어버리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할 시점이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긴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죽음’은 사람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장례의 모든 절차와 의식은 예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죽은 자를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제구(祭具)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상여(喪輿)이다. 죽음을 매우 신성하게 여겨 현세에서 내세로 떠나는 길을 화려하고 웅장한 상여로 운구하는 것을 망자에게 갓출 수 있는 가장 큰 예의로 여겼다. 전통 상여 문화는 장례의 고유 기능인 ‘고인에 대한 추모’,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 장례를 치르고 난 가족들이 사회에 환원해서 다시 화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력을 복돋아 주는 역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실천한 장례 문화이다.

상여 문화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사별(死別)로 인한 내적인 슬픔인 비탄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 구실을 하였다는 점이다. 죽음이라는 큰 변고를 만났을 때 마음속의 애절한 비통함과 밖으로 표현되는 강렬한 반응, 즉 통곡하고 흐느끼는 것은 모두 수용되었으며, 모든 행동에 표현된 슬픔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별로 인한 비통함을 표현하는 정성으로 받아들여졌다. 내재적 감정인 슬픔의 표출은 상례의 본질이자 상례의 존재 의미이며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상례 중 죽음을 슬퍼하는 비통함의 표현이 고인과의 이별에 따른 애통함을 전달하는 예의로 간주하여 중요시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감내해야 하는 남은 자의 숙제로서 강조되기도 한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상례보다 더욱 본질적이

1) 2022년 1월 27일 이후에는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서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2.01.27.)라고 발표하였다.

며 중요하다고 보았던 공자는 자신이 ‘예(禮)’의 중요성을 지극히 주창한 사람임에도 ‘상(喪)[상례]’에서는 절차에 치중함보다는 오히려 슬퍼함이 낫다’(Lunyu, Baiyi)²⁾고 하여 진실로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죽음을 슬퍼하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상호간의 조화를 인식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극적 운명을 감지하며, 생존의 고난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인간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는 도리를 체득하게 된다(Cho, 2005: 23). 죽음을 볼 때에 슬픔을 다하는 것, 그것은 유교에서 보는 본성적인 것이요(Mengzi, Jin Xin II)³⁾ 살아있는 자의 진실태인 것이다(Lunyu, Zizhang)⁴⁾라고 하였다.

슬픔 표출에 관한 서양 심리학자들의 관점도 이와 유사하다.

표현되지 않은 애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전부 표출될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적 상실에 대한 반응은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슬픔의 고통으로부터의 도망은 단지 임시 바람막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 애도의 필연성이 정신적 기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속 표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것이며, ‘동기가 없는 우울증’의 형태로 종종 나타난다(Deutsch, 1937: 16).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슬픔 표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표출되지 못한 슬픔은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타자의 죽음뿐이다. 타자의 죽음은 남아 있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숙제를 남긴다. 망연자실한 상실 앞에서 “후회할 만큼 후회하고, 미워할 만큼 자신을 미워하다가, 쓰러질 만큼 최대한 올라.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마라”(Kubler-Ross & Kessler, 2005: 53)고 하여 남겨진 사람이 떠난 사람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여정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치라고 언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여(喪輿)를 이용한 한국 전통 상례(喪禮)의 슬픔 치유 기능과 그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여 상실의 고통이 성장의 기초가 되고 삶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지하게 되는 교육적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상여를 이용한 장례 과정을 살펴보면 울음과 웃음 두 극과 극의 정서를 모두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출상 전날 빈 상여를 메고 실제 상여가 나가듯 연습하는 중에 놀이를 하는 ‘빈상여놀이’[혹은 철야, 다례, 찻김굿, 다시래기]이다. 슬픔 속의 웃음의 역할과 심리적 영향을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Stroebe & Schut, 1999)의 감정의 진동 효과 측면에서 고찰한다. 둘째,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길을 가면서 부르는 ‘상여소리’이다. 상두꾼의 입을 빌려 망자의 삶을 애절하고 슬프게 노래하는 이 ‘상여소리’는 상주들과 마을 주민들을 통곡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울결(鬱結)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동서양

2) 論語·八佾, “禮與其奢也寧儉喪與其易也寧戚.”

3) 孟子·盡心 下, “孟子曰 堯舜 性者也 … 哭死而哀 非爲生者也.”

4) 論語·子張, “喪思哀 其可已矣.”

의 감정론으로 논의한다. 이는 결국 상실이 성장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의미화의 과정이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실(喪失; loss)은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대상 상실도 포함한다. 사별(死別; bereavement)은 죽음 관련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의 상황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비탄(悲嘆; grief)은 상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성격적, 육체적, 행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반응들 모두에 적용된다. 애도(哀悼; mourning)는 상실과 비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대처 혹은 애도의 심리내적(intrapsychic)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상실 대처 교육은 상실과 그로 인한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 결과 평정을 되찾고 건강한 방식으로 삶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대한 재학습, 새로운 일상성으로의 발전, 삶의 의미 재구축을 이루게 된다.

II. 상여(喪輿)와 상례(喪禮)

1. 상여의 유래와 변천 과정

한국인만의 독특한 장례 문화인 상여는 기원이나 발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선사 시대부터 매장 풍습이 나타나면서 시신을 운반하는 간단한 들것 형태의 도구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으로(Yun & Yang, 2016: 12) 상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가마는 평상시에 임금이나 고관대작이 타는 것이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는 신분의 제약이 없었다. 평민들은 이생에서 신분 차별로 누리지 못한 호사를 죽어서라도 가는 길에 한껏 누렸던 것이다. 민중의 소박한 염원과 소망을 반영한 ‘천국으로 가는 가마’라고 할 수 있는 상여는 197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로 상가(喪家)에서는 점차 기존 형식과 다른 상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농촌 지역의 청년층이 교육과 취업 같은 여러 이유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자, 농촌에는 상여를 메고 운구할 사람이 점차 부족해져 주민들은 이 문제를 지상여(紙喪輿)[일명 꽃상여]의 사용으로 직접 해결하였다. 상주는 지상여가 남이 사용하지 않아 깨끗해서 좋아했고, 상여꾼들은 지상여가 가벼워서 운구하기 편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이어서 운구 후에 불분하는 동안 불태워버리므로, 마을로 돌아올 때 육체적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마을에서는 산 아래 같은 외딴곳에 상여집을 지어서 보관하였는데 이를 곳집 또는 행상집 등으로 불렀다. 1990년대에 상여 사용이 점차 줄어들자, 주민들이 결의해서 자체적으로 상여를 태우고 상여집을 허물기도 하였다. 한편,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상여집을 일제 정비하여 요즘은 상여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축제 형식의 행사 외에는 개인이 상여를 이용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이와 같이 상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장례 문화의 변화와 맞물려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영구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2. 상례(喪禮)의 절차

사람이 운명하고 치러지는 장례(葬禮) 또는 상례(喪禮)는 예부터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는 우리 선조들 사이에서 전통 예절 중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예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송종지미덕(送終之美德)’이라 하여 마지막을 보내는 의식에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다.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 드리기 위한 의식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밝히고 평생의 공적을 기리고 새기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Gyomubu, 2010).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의 과정은 죽음을 현실로 수용하는 과정으로서 임종에 따른 의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습(襲)과 염(殮)에 따른 의례, 죽은 자를 신의 세계로, 또는 극락으로 보내는 과정인 철야와 매장에 따른 의례, 상주들이 현실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인 매장 후부터 탈상까지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Choi et al., 2001: 215).

죽음이 현실적으로 확인되면 그 죽음을 부정하고 곡을 하며 슬퍼하지만 죽음이 확인되면 죽은 자의 시신을 정결하게 처리하고 씻김굿 등의 무속 의례를 통해 망인을 신의 세계로 천도하며, 극락으로 왕생했다고 믿는 믿음 위에 시신을 매장한다. 특히 망인을 신의 세계로, 또는 극락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놀이패들은 상주를 비롯해 죽음으로 인해 결손을 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과 놀이로 위로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의례가 철야, 밤달애, 다시래기, 산다이 등인데 노래와 춤, 놀이 등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상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마을 사람들 스스로의 마음도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Choi et al, 2001: 216).

상여를 메고 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례들이 실행되며 매장이 끝난 후 상주가 일상생활과 마을공동체의 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이 의례화 되어 있다. 이 절차와 의식은 망자에게 표하는 예의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의 슬픔을 조금씩 해소해가게 하는 애도의 과정이기도 하다. 의례의 여러 절차를 통해서 감정의 투사가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출해냄으로써 울결(鬱結)의 감정이 서서히 해소되어간다. 상례의 각 절차는 의식(儀式)이라는 인지과정을 통해서 슬픔의 감정을 매듭지어가는 의미를 갖는다.

Ⅲ. 빈상여놀이와 감정의 진동

1. 빈상여놀이 : 해학과 풍자 속 치유 효과

상여를 이용한 장례에서는 ‘빈상여놀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었다. 개인이나 가족에게 두렵

고 슬픈 이 상황을 공동체 의례를 통해 상주들을 위로하며, 상여를 통하여 슬픔과 절망이 아닌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켰다. 출상(出喪)하기 전날 상여꾼들은 상여를 점검하고 운구 시 자기가 서게 될 위치를 정하고 난 후, 빈 상여를 메고 다음날 상여 운반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한다. 상여꾼들은 앞소리꾼의 상여 소리에 발을 맞추며 실제 상여가 나가듯 연습하는 중에 놀이를 시작하는 데 이를 일명 ‘빈상여놀이’라고 한다.

‘빈상여놀이’[혹은 철야, 다례, 씻김굿, 다시래기, 데오라기]는 앞소리꾼이 상여소리를 메기고 상여꾼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갖은 놀이를 하게 된다. 흥겹게 노래를 부르거나 우스개 몸짓으로 상주를 놀리거나 곡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병신춤을 추며 상주를 포함한 문상객들을 웃긴다. 해학과 풍자로 지친 상주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상여 주위에 모여 춤을 추고 흥겹게 상여소리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죽은 사람을 마치 산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주고받으며 죽은 자를 위로하고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노는 놀이이다. 밤이 깊도록 이 상여놀이는 계속된다(Kim, 1974: 258).

장례가 놀이와 한 테두리로 묶여진 이 당황스러운 의식은 외국인의 눈에 어색해 보였다는 기록이 있다. 1902년부터 1903년까지 서울에 주재한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이탈리아 총영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장례식의 주된 분위기가 분명 슬픈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감정을 가장하려는 극동 아시아 모든 민족의 기질인 것이다. 상여꾼들은 종종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보조를 맞춰 행진하고, 가족들을 둘러싼 친지들은 농담이나 웃음 짓으로 가족들을 흥겹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었다(Rossetti, Yoon & Kim, trans., 1996: 133-134).

이탈리아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마치 슬픔을 감추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상주나 마을 사람들 모두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장례 절차였다. “상례의 모든 절차 동안에는 소리 높여 울고, 땅에 묻을 때는 춤과 노래로 죽은 사람을 떠나보낸다.”(Suishu, Gaolizhuan)⁵⁾는 기록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례는 전통적으로 슬픔을 다하는 통곡과 복치고 춤을 추는 웃음, 기쁨의 두 정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별에 관한 연구 자료에는 부정(否定)이라는 맥락에서만 언급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느끼는 어떤 행복감 - 기쁨, 즐거움, 웃음 - 은 상실을 극복해 나가는 정상적인 과정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억제할 뿐이라고 생각했다(Bowlby, 1980: 193). 그러나 함께 어울려 마시고 놀면서 죽음의 슬픔을 잠시나마 털어내려고 하는 행위는 상

5) 隋書·高麗傳,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의 극복을 향한 애도의 또 다른 면이다. 마을 공동체 사람들의 빈상여놀이인 슬픔과 절망을 웃음과 해학으로 승화시키려는 독특한 인간의 정(情)의 표장(表彰)인 것이다. 웃음이 슬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센 미소(Duchenne’s Smile)’로 논의해 본다.

2. 슬픔 속의 뒤센 미소(Duchenne’s Smile)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었을 때 찾아드는 통렬한 슬픔은 ‘내밀한 고독감’(Packer, 2002: 9)이고 ‘체념의 감정’이다. 슬픔은 우리의 시선을 내면 깊은 곳으로 돌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Bonanno, Park trans., 2010: 67). 사별하고 난 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에 적응하고자 애쓸 때, 슬픔은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데 꼭 필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제 더 이상 그가 없는 세상에서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이 강제로 ‘쉬는 시간’은 생물학적 체계를 둔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삶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게 하여 일상의 관심사를 잠시 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Bonanno, Park trans., 2010: 69).

사별을 겪은 후에는 분노도 느끼게 되는데 끊임없는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한스러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고인을 향해 표출하기도 한다. 고인이 생전에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에도 분노를 느끼며, 때론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분노의 핵심 기능은 스스로 방어할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므로 분노는 스스로를 자각하여 자신이 혼자 힘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쇠약해진 마음을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여 앞으로 닥칠 난관에 스스로를 대비시킬 수 있게 함이다(Bonanno, Park trans., 2010: 76).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상중의 슬픔과 분노 속에서 ‘빈상여놀이’의 해학과 풍자로 상주와 청중들의 웃음을 유도하려 한 이 절차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감정 연구가들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다는 것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특히 사별처럼 힘겨운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Bonanno & Keltner, 1997). 안륜근[눈 위아래를 감싸는 초승달 모양의 근육]의 수축을 동반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나 미소를 ‘뒤센 미소’(Ekman, 1992)⁶⁾라고 명명하는데, 이 뒤센 미소에 해당하는 표정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Gervais & Wilson, 2005: 395-430) 그 중 하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미

6) 뒤센 미소(Duchenne’s Smile) : 폴 에크만(Paul Ekman, 1992)은 사람이 얼굴 근육을 이용하여 총 19가지의 웃음이나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워서 웃을 때만이 눈 가장자리 근육인 안륜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을 처음 밝혀낸 신경심리학자 기욤 뒤센(Guillaume Duchenne)의 이름을 따 뒤센 미소라 명명하였다(Bonanno, 2010: 77).

소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의 행복한 감정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뒤센 표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으며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협조하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Weisfield, 1993: 141-169). 또한 이러한 미소 띠는 표정은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Bonanno, Park trans., 2010: 80).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 자신 역시 슬픔을 느낀다. 사별한 사람들 중 상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웃음이나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좌절감은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eltner & Bonanno, 1997: 687-702).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다. 잠시나마 슬픔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보내게 되는 시간이 훨씬 덜 힘들고 더 보람 있으며, 모든 사람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슬픔과 곡소리가 넘치는 초상집에서 빈상여놀이로 한바탕 웃음판의 놀이를 벌이는 것은 힘든 이들에게 웃음을 확산하여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으로 혼자가 아니라라는 집단 소속감을 고양시켜주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일종의 의식이고 지혜이다. 잠깐 동안의 웃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죽음은 슬프지만 슬퍼할 일만도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운명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운명에 함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웃음은 죽음 앞에서 산 자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위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진동 역시 애도의 과정임을 ‘이중 과정 모델’로 해석한다.

3. 감정의 진동: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

사별로 인한 극심한 슬픔과 비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슬픔의 감정이 일종의 진자처럼 진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평상시에도 오락가락 동요하는데, 상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별개의 과정 사이에서 진동해야 한다.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에만 빠져 있을 틈이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기에 슬픔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진동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감정의 이중적 변주로 이루어지는 애도를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Stroebe & Schut, 1999)이라 한다. 이중 과정 모델이란 우리의 감정이 “상실지향적 과정(loss-oriented process)”과 “회복지향적 과정(restoration-oriented process)”을 오가는 것을 뜻한다. “상실지향적 과정”은 고인과 관련된 상실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회복지향적 과정”은 더 이상 고인이 없는 삶 속에서 앞으로 닥칠 여러 난관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완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애도의 과정에서 심적 동요[진동]는 상실 측면과 복원 측면 모두에서 직면과 회피를 반복하며 둘 사이를 오간다. 사별에 대처하는 것은 대립과 회피의 복잡한 과정이므로 이런 진동은 적응적 대처에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복구’ 혹은 ‘복원’은 사별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복구되는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가 없어진 현재와 미래에서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Stroebe & Schut, 1999: 140). 카스텐바움(Kastenbaum, R. J.)의 “고통은 충격과 슬픔의 첫 번째 파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깨달음은 종종 삶은 지속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Kastenbaum, 1977: 138)는 표현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슬픔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은 슬픔이라는 참호 속에서의 휴식이다. 찰나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내고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놀랄만한 인간의 능력이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랑했던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이따금씩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어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즐거웠던 추억과 가슴 아픈 슬픔의 감정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들 사이를 나름의 방식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유연성은 상실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슬픔과 기쁨 사이를 오르내리는 감정의 진동에서 비롯된다(Bonanno, Park trans., 2010: 87).

점차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진동 패턴은 더욱 유연해지고 한층 더 안정된 균형을 찾아간다. 긍정적인 감정 쪽으로 좀 더 움직여 가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위안이 일상 속에서 좀 더 확고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Bonanno, Park trans., 2010: 140). 따라서 애도는 건강하고 보호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정서적 외상에 직면하여 생존을 촉진하기 위한 진화적인 적응이며, 일상적인 기능이 보존되기 때문에 부상이 감지되지 않는 곳이다. ‘빈상여놀이’ 중 웃음은 슬픔과 회복 사이를 오가면서 슬픈 감정을 조금씩 소요시켜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IV. 상여소리와 울결(鬱結)의 해소

1. 상여소리

맑은 하늘을 가르는 요령 소리는 이승을 떠나 저승 문으로 가 닿기라도 할 듯, 떨리면서도 구슬프게 울려 퍼진다. 애절하고도 비통한 곡소리와 담담한 듯 구성진 상여소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위로받는다. 그 시간만큼은 그들 모두 하나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떠나보낸다(Kim, 2012: 212).

상(喪)·제(祭)례는 예기치 못한 혈속(血屬)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로부터 엄습하는 공포감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애절한 슬픔의 형태로 대체시켜주는 의례적 장치이다. 출상 날 아침, 하늘에 올리는 발인축문은 스스로 참아야 하는 고통과 협조와 신뢰로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려는 우리 겨레의 인간성을 나타내주었다(Gyomubu, 2010). 이제 산지에 시신을 매장하는 산역(山役)을 행하러 간다. 마을에서 산지까지 장례 행렬은 길었으며 상여는 무겁고, 메고 가는 거리가 멀어서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메고 운반했다. 이 과정에서 상여 앞에서 선창자인 선소리꾼[상두꾼, 요령잡이]이 요령[작은 종]을 흔들며 애처로운 목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노래를 선창하면 상여를 멘 상여꾼들이 그 소리를 이어받아 후렴구를 부르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상여소리이다. 상여소리는 노동요의 기능도 하였지만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주면서 장례 의식을 정성스럽게 하고 망자 가족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두꾼은 처량한 듯 구슬픈 진혼곡으로 죽은 자에게 저승의 명복을 빌면서 산 사람에게는 나쁜 액운이 들지 않기를 기원하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면서 상주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랬다.

상여소리는 전국적으로 또한 지역별로 선창과 가락과 후렴이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소리의 내용은 유불선 사상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극락왕생의 내세관이 표현되었다. 선소리로 부르는 사설(辭說)은 고인의 영혼이 떠나기 싫어하는 심정과 극락왕생하라는 기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사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들려주어 착하게 살라고 권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삶의 여정을 되짚어보며 살아생전 그 분이 고생한 일들, 선하게 실천한 업적, 그분의 덕망 등을 추억하는 인생가(人生歌)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상주들을 통곡하게 했고 이를 지켜보는 마을 주민들도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유순하게 만들고 만다.

상여는 이승과 저승의 가교 역할을 한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신체생물학적인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시원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상징하는 의미화 과정의 의례이다.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게 마련이지만 죽음은 죽는 당사자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모두 두렵고 슬픈 일이다(Baek & Shin, 2021: 117). 비록 죽음이 자연의 섭리로 이해된다 하더라도 삶에의 가치 즉 ‘호생(好生)’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었기에 그 종말의 상황을 보면 애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Cho, 2005: 23). 결국, 상여소리가 가지는 기능은 고인의 영혼에 대한 위로 내지 생전의 업적과 덕망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유족이나 후손들에게는 조상숭배의 종교적 기능을, 고인에게는 인생을 하직하고서 가는 작별가(作別歌)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묘사하는 일종의 인생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상여소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름으로서 삶 본연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기능까지도 한다는 점이다(Kim, 1974: 258). 즉 상여소리는 산 자들에게 죽은 자를 불쌍

히 여기고, 죽은 자에 대하여 경애의 정을 표하게 만들어,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상호간의 생명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다.

2. 상여소리의 울결(鬱結) 해소 기능

상실 직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렬한 슬픔을 경험한다. 이 상여소리로 인하여 유가족은 한바탕 대성통곡을 하며 그 강렬한 슬픔의 감정을 해소하게 되어 ‘후련하고 시원한’ 감정 상태가 된다. 생명이 지향하는 것은 생리적 안정성이다. 이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 해소된 후에 깃드는 정서로서 예컨대, 통곡으로 대변되는 고통과 슬픔은 상(喪)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또는 다른 감정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감정의 본성과 속성의 구현을 저해한다. 양명은 한바탕 대성통곡을 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슬픔에서 비롯되는 불안감을 넘어서 안정되고 편안해지며 이것이 곧 마음의 본성인 즐거움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라고 역설한다(Park, 2014: 23).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의 즐거움은 가족의 상에 직면하여 마음에 나타나는 일종의 회한과 참담함 때문에 발생한 애통한 감정인 울결(鬱結)을 한 차례 대성통곡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구현되는 ‘후련하고 시원한’ 감정일 것이다. 실제로 어떤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통이나 불안의 강도가 점차 후련함과 안정감으로 이행하는 과정(Park, 2014: 23)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동화(assimilation)’와 동일하다. 동화는 생명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말하는데, 이 안정성은 신체의 안정성, 곧 항상성이나 질료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몸은 이를 바탕으로 쾌적함, 곧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Lim, 2018: 460).⁷⁾

이러한 울결의 해소는 상실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슬픔에서 현재 자신이 처한 실존의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여러 사태에 대해 예감하고 행위 할 수 있는 현실로 돌아가는 치유의 과정을 돕기 때문에 상례 시 되도록 풀어내야 하는 과업이다(Lim, 2018: 329). 그래서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마라.”고 한 것은 바로 ‘실컷’ 울어 슬픔의 감정을 다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며,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 장치이다(Kubler-Ross & Kessler, 2005: 70). 흘리지 못한 눈물은 슬픔의 샘을 훨씬 더 깊게 채운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해지며, 그것은 내적 고통을 외부로 표현하는 하나의 길이다.

7) 양명은 “즐거움이 심의 본체이다. 즐거워할 것을 얻으면 기쁘고, 즐거워할 것에 반하면 분노하며 즐거워할 것을 잃으면 슬퍼하게 된다.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즐거움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칠정으로 대변되는 감정 일반의 준거는 심의 본체로서 즐거움이며 오직 이 즐거움에 근거하여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들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심체의 무체성을 바탕으로 즐거움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Park, 2014).

상여 의례 절차와 과정은 상초(喪初)에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정신적 쇼크와 마비 상태를 공동체 사람들의 돈독한 인정과 위로, 해학과 호느낌으로 슬픔에서 서서히 탈피하게 해준다. 또한 동시에 이후 다양한 감정의 변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당면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평온한 감정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탄을 생리학 적 반응이나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상실은 치유와 회복에서만 그치게 될 것이다.

상실은 결국 자기 실존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으로 이어진다. 상실의 여파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비옥한 시간이다. 상실 후에는 죽음을 들여다보고, 고독을 견디고 경험하면서, 신중하게 기꺼이 자신의 삶의 상황에 직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단련하는 자기해부의 과정이야말로 ‘의미적 실존’이 되는 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적 불안정성의 극단적인 과정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적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는 ‘우연성’과 ‘우발성’의 속성인 상실을 자신의 실존적 만남으로 전회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로 거듭난다(Lim, 2022: 7).

이 주체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우연적 사건을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삶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의미화’ 과정은 감정을 멈추게[지(止)]하며, 이 멈춤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시작이 된다. 흥터는 남게 되지만 치유는 계속된다. 슬픔을 극복하고 자기 성장을 통하여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상실대처 능력이다. 공자가 “슬퍼하되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Lunyu, Bayi)⁸⁾”고 한 것과 애도의 마지막 단계를 “슬픔에서 현실로 돌아가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며,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Westberg, 1962)”임을, 그리고 “희망, 재조정, 참여, 그리고 치유의 시간(Kubler-Ross & Kessler, 2005)”임을 강조한 이유일 것이다.

V. 결 론

상실대처의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의 성장에 있다. 우리 인간은 의미 있는 타자의 상실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뿐만 아니라 소중한 대상에 대한 상실은 자신의 전부를 잃은 듯한 아픔과 상실감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죽음을 신체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종결로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적인 내재적 규정으로 인식하며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의 소멸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 스스로 생명의 주체임을 깨닫게 된다. 한계 상황의 수용을 바탕으로 한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생명의 진실한 의미를 인식하게 하여 결

8) 論語·八佾, “樂而不淫 哀而不傷.”

국 인간의 존엄함과 고귀함을 깨우치게 된다.

한국의 독특한 상여문화는 죽음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려는 종교적 기능, 생전에 맺어왔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체와의 유대 속에서 풀어나가려는 사회적·공동체적인 기능, 그리고 시신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실제적인 기능 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성급하게 해치우는 상업적인 상·장례 문화에서는 위의 기능들 중 주점의 처리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삼일 동안의 상·장례에는 결코 ‘애도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으며, ‘상실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장’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옛 장례 문화 속에 살아있던 상여의 기능에 대하여 탐구하는 목적은, 죽음을 경건함으로 대함으로써 슬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유가족을 위로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던 조상들의 태도와 그 역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과 소중함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중하고 존엄한 의식을 통하여 치유 받을 수 있는 상실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죽은 자를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곧 인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표시이며 이는 곧 인간성의 존중이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죄책감, 분노 또한 사별을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삶과 죽음에 관한 체계적이고 건전한 죽음관을 확립할 때 비로소 상실이나 사별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삶을 긍정하는 용기를 갖는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은 삶과 죽음에 대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면할 수 있는 영적 안녕감을 고취시켜주며 자신의 이해를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적 공감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준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된다(Shin et al., 2022: 7).

의미 있는 타자의 죽음은 존재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의 이행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떠남’이다. 이 충격으로 유발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깊이 애통해하며 상실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의 필요가 절실하다. 감염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그 절차마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의 아픔, 그들의 박탈된 비탄을 인정해주고 함께 위로하는 사회적인 방안의 제공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論語. *Lunyu*.

孟子. *Mengzi*.

隋書. *Suishu*

[Secondary Sources]

- Baek, M. W. & Shin, C. H. (2021). Confucius' and Socrates' Views of Death for the Purpose of Death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9(1), 105-124.
- Bonanno, G. A. & Keltner, D. (1997).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and the course of conjugal bereave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126-137.
- Bonanno, G. A. *The Other Side of Sadness: What the New Science of Bereavement Tells Us about Life After Loss*. 박경선 옮김 (2010). 슬픔 뒤에 오는 것들. 서울: 초록물고기.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Deutsch, H. (1937). Absence of grief.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VI, 13-22.
- Ekman, P. (1992). Are there basic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99(3), 550-553.
- Gervais, M. & Wilson, D. S. (2005). The Evolution and Function of Laughter and Humor: A Synthetic Approach. *Quarterly Review of Biology*, 80, 395-430.
- Kastenbaum, R. J. (1977).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New York: Mosby.
- Keltner, D. & Bonanno, G. A. (1997). A study of laughter and dissociation: Distinct correlates of laughter and smiling during berea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687-702.
- Kubler-Ross, E. & Kessler, D. *On grief and grieving: finding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he five stages of loss*. 김소향 옮김 (2005). 상실수업. 서울: 인빅투스.
- Lim, B. S. (2022). *A Study of Signification of Pain*, 상실비탄에도실친 강의록 9.
- Packer, I. J. (2002). *A Grief Sanctified*. New York: Crossway Books.
- Park, K. S. (2014). The Problem of Moral Emotions and Le(樂) in the Wang Yang Ming's Philosophy: A Moral Psychological Consideration on Wang Yang Ming Xinti(心體) thought. *Yang-Myung Hak*, 38, 5-50.
- Rossetti, C. *Corea e Coreani*. 윤종태, 김운용 옮김 (1996).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 숲과나무.
- Stroebe, M. S.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 Weisfield, G. E. (1993). The adaptive value of humor and laughter. *Ethology and Sociobiology*, 14, 141-169.
- Westberg, G. (1962). *Good Grief*. Norristown, PE: Fortress Press.
- Yun, B. H. & Yang, A. R. (2016). A Study of Funerals and Bier in th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Studies, 31, 83-102.

- 교무부 (2010). 다시 보는 우리문화: 장례문화. 제110호. (Translated in English) Gyomubu (2010). Revisiting our culture: Traditional funeral service culture. Retrieved 2022.10.02. from http://webzine.daesoon.org/board/view_win.asp?webzine=&menu_no=&bno=4109&page=1.
- 김성배 (1974). 향두가(香頭歌) · 성조가(成造歌). 서울: 정음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S. B. (1974). *Songs for Buddhism*. Seoul: Jung Eum Sa.
- 김준수 (2012).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서울: 알마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J. S. *When will You Come Back?*. Seoul: Alma Publications.
- 신창호, 백미화, 권선향, 우버들 (2022). 죽음이해를 통한 생명존중교육. 서울: 박영스토리. (Translated in English) Shin, C. H., Baek, M. H., Kwon, S. H. & Woo, B. D. (2022). *Death Understanding for Life Education*. Seoul: Bak Young Story.
- 임병식 (2018). 감정치료. 서울: 가리온. (Translated in English) Lim, B. S. (2018). *Emotional Therapy*. Seoul: Garion.
- 조남욱 (2005). “사자(死者)에 대한 유교적 사고방식”. 이상목, 강동균, 곽만연, 김성연, 손승길, 조남욱, 김수청, 이을상, 하순애, 김명우. 한국인의 죽음관과 생명윤리(21-42). 서울: 세종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Cho, N. W. (2005). Confucian way of thinking about the dead. in Lee, S. M., Kang, D. G., Kwak, M. Y., Kim, S. Y., Son, S. G., Cho, N. W., Kim, S. C., Lee, E. S., Ha, S. A., & Kim, M. W. (2005). *Korean Perspectives on Death and Life Ethics*. Seoul: Sejong Publications.
- 최인학, 김미영, 배영동, 표인주, 나승만, 홍루시, 윤광봉, 황인덕 (2001). 한국 민속학 새로 읽기. 서울: 민속원. (Translated in English) Choi, I. H., Kim, M. Y., Bae, Y. D., Pyo, I. J., Na, S. M., Hong, R. S., Yoon, G. B., & Hwang, I. D. (2001). *New Interpretations of Korean Folklore*. Seoul: Minsok Won.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상여. (Translated in English)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Sang-Yeo. Retrieved 2022.10.02. from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36>.
- 한국질병관리청 (2022.01.27.).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Translated in English)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2.01.27.). Report: Cremation is allowed after the funeral of a COVID-19 decedents, expanding opportunities for mourning and commemoration.